

이 땅의 소망, 거룩성 회복에 있다

뉴스피릿무브먼트 포럼에서 칼빈 사상과 거룩성 운동 발표

뉴스피릿무브먼트(New Spirit Movement, NSM)가 제2차 포럼을 12일 오전 남가주빛내리교회에서 개최했다.

뉴스피릿무브먼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으로 사람을 깨우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성령의 시대로 만들어 가자는 운동이다. 이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성경회복운동과 성령 충만한 세계를 만들자는 성령회복운동, 모든 이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는 성결회복운동을 지향하고 있다.

이날 대표 박용덕 목사는 '존 칼빈과 거룩성 운동'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박 목사는 NSM의 3대 표어 중 하나인 '거룩한 삶'과 칼빈의 신앙 사상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인격을 만들어 성화에 이르러야 하는데,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칭의의 순간부터 시작해 최후의 심판인 구원의 날에 완료되는 것으로 봤다. 특히 칼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레위기11:45



뉴스피릿무브먼트를 통해 남가주 지역의 거룩성 회복 운동이 점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포럼을 마친 후, 참석자들 기념촬영.

와 베드로전서1:16을 인용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함을 설명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전교회, 전세대에 걸쳐서 강력하게 추

구해 나가야 할 중요한 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목사는 거룩한 가정과 칼빈의 신앙사상에 대해 말했다. 그는 "칼빈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 중심 사상 및 하

나님의 절대적 주권사상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말한다. 칼빈이 주장하는 가정 역시 하나님이 지배하도록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가정이라고 했다. → 4면에 계속



이용우 목사, 김영대 목사, 박영배 목사, 오상철 박사가 심포지엄에 관해 설명했다.

이민신학 놓고 1세·2세 머리 맞댄다

복합문화에 대한 이해와 목회 리더십, 복합문화 속에 있는 2세 교육문제를 깊이 다뤄 이민교회를 돕는 데에 목적이 있는 제4회 이민신학 심포지엄이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나성영락교회 EM예배실에서 열린다.

남가주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 이민신학연구소(소장 오상철 박사) 주최로 열리는 심포지엄은 1부 개회예배, 2부 주제 강연 등의 큰 틀로 진행되며 2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해 토의를 하게 된다. 특히 개척세대와 현재 세대, 차세대 사역자들이 1세와 1.5세, 2세 목회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LA 한인타운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영대 목사는 "1세와 2세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대화로 잘 되지 않고 있어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며 "심포지엄을 통해 이민목회의 문제가 극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토마스 맵 기자

워싱턴주 한인교회 해냈다! 동성결혼법 발효 저지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 움직임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지난 2월 워싱턴주 상하원에서 통과되고,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합법화됐던 동성결혼 법안의 발효가, 24만 워싱턴 주민들의 반대서명으로 저지됐다. 반대서명(Green R-74)에는 "한인교회와 사회단체들의 역할도 매우 컸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동성결혼 반대서명 캠페인을 주도했던 워싱턴가족정책연구소(대표 조셉 백홀름)는 이번 서명운동

에서 한인교회의 협력이 매우 컸다는 점을 높이 부각시켰다. 백홀름 씨는 "워싱턴주 한인교회가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의 공개 직후부터, 서명 캠페인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 큰 힘이 됐다"며 "서명 운동의 성공에 한인들이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다.

이번 서명 운동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워싱턴주한인교회연합회(회장 배명현 목사)가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워싱턴주한인교회연합회는 동성결혼 법안 통과 직후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을 통해 서명 운동에 동참 의사를 밝히고, 워싱턴 가족정책연구소와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수립했다.

또 시애틀, 웨드럴웨이, 타코마, 올림피아 각 지역 교회연합회

와 목사회, 각 한인 사회단체에 동성결혼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서명운동 동참 방법을 알려 대영교회를 비롯해 중소교회와 사회 단체에까지 캠페인이 확산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워싱턴주한인교회연합회는 R-74 서명 용지가 나오자마자 워싱턴주 각 교역과 교회를 통해 빠르게 보급했다. 충분한 용지 확보와 신속한 확산은 미국인들조차 한인교회로 찾아와 용지를 구할 정도로 효과적인 움직임이었다. → 2면에 계속

TAX 문제 전문 자신동결 및 은행구좌 차입해결, 일리세금사감, 세무감사대리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전문가, CPAs

Clients	Case (Dec/11-Jan/12)	Results
Mr. Hwang, W	IRS \$62,317	합의 \$8,218
Mr. Lemonnier, H	FTB \$118,874	합의 \$1,700
Ms. Wilson, M	IRS \$450,190	합의 \$20,160
Mr. Kim, H (C. Corp)	BOE	Sales Tax Audit Audit Dismissed
Mr. Rogers, A	IRS \$327,280	Levy lifted & \$500/mo
Mr. Farley, C	IRS \$3,112,350	합의 \$0

TAX HELP TEAM (213) 248-0221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을 시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수업시작일: 8월 26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4차원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만나라

MTS 컨퍼런스, 미기총 · 남가주교협 · OC교협 · 남가주목사회와 함께

Ministry Training School(이하 MTS) 컨퍼런스 및 4차원 영성 리더십 세미나가 11일 오전 9시 나성서부교회(이정현 목사)에서 개최됐다.

MTS 컨퍼런스는 평신도를 목회자 같은 사역자로 세우는 평신도 사역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송정명 목사(미주평안교회 담임), 정도람 목사(MTS 전문강사), 정우성 목사(남가주광명교회 담임 및 4차원 영성 전문강사), 변영의 목사(벤엘장로교회 담임), 엄영민 목사(OC제일장로교회 담임), 이정현 목사(나성서부교회 담임) 등 남가주 지역에서 건강한 목회를 주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섰다.

첫날 정우성 목사는 교회성장연구소에서 펴낸 '4차원의 영성학교'란 교재를 사용하면서 강연했다. 그는 "4차원 영성이란 4차원의 세계를 움직이는 생각, 믿음, 꿈, 말이라는 4가지 요소를 잘 다스리고 훈련하는 영성"이라며 "4차원에 속한 하나님이 3차원의 세계에 역사하시는 통로는 인간의 생각, 믿음, 꿈, 말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정 목사는 "생각은 우리의 삶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기회, 배경, 교육, 윤, 두뇌회전력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이다.

그는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 활동에 영향을 준다 △대인관계에 영향을 준다 △환경에 영향을 준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변화시킨다고 했다.

이어 정 목사는 생각이 변화되면 행동의 변화, 습관의 변화, 인격의 변화, 운명의 변화가 따라온다고 했다. 정 목사는 "자아상을 변화시키라"고 주문했다.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로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한다는 것이다.

이어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랫동안 자라는 환경과 습관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이를 물리치는 방법은 좋은 멘토와 동역자를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4차원 영성 전문강사인 정우성 목사가 생각, 믿음, 꿈,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신을 채우라

믿음으로 기적을 기대하고 창출하라

또 그는 말씀묵상과 기도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 자신을 채워야 한다"고 했으며, "현재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채우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목사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준다"며 "오직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과 교통하시며 일을 하신다. 성도의 삶은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믿음이 기독교의 출발이자 본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믿음은 기적을 기대하고 창출한다"며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면 기적을 맞출 수 있다"고 했다. 또 그는 "믿음은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담대함과 비전을 불러 일으킨다"고 했다.

그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 △분명한 대상을 마음 속에 그리라 △간절한 소원을 가지라 △확신을 얻도록 기도하라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하라"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의 기름 부

으심으로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중요한 것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 △믿음으로 사역을 꼽았다. 이에 덧붙여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해야 한다"고 했다.

컨퍼런스 후반부에서 정 목사는 인간적인 욕심이나 야심을 하나님의 꿈과 분별해야 함을 역설했다. "나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일 때 성령이 주시는 꿈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씀과 기도, 성령과의 동역과 연합을 주제로 구체적인 자기 훈련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컨퍼런스를 마쳤다.

행사는 미주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 남가주교협, OC교협, 남가주목사회 등이 공동으로 후원했다.

토마스 맵 기자

WA동성결혼법 발효 중단

→ 1면으로부터 또 주 의회에서 규정 한 서명 방법을 자세하게 홍보하고, 반대서명을 위한 유권자 등록 방법과 응지를 전 교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KPC(PCUSA서북미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권준 목사)와 같은 한인교회와 교단에서 동성결혼 반대 서명에 적극 동참 의사를 표시하고 협력한 것도 캠페인에 큰 힘을 실어줬다.

일단 발효가 중단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은 11월 주민투표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를 위해 워싱턴주 한인교회연합회는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배명현 목사는 "이번 서명 운동을 통해 워싱턴주가 새롭게 될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며 "11월 주민 투

표를 통해 동성결혼법 자체를 무효화하고, 더 나아가 워싱턴주가 전통적 결혼을 법률화 한 미국 내 32개주와 같이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만 정의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서명 캠페인은 그동안 비교적 미국 내 정치참여에 소원했던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면서 미국 정치 참여의 문을 열었다는 성과도 나타냈다.

워싱턴주한인교회연합회 측은 "유권자 등록을 통한 정치 참여는 한인들의 정치적 신장과 한인 자녀들의 사회적 입지를 높일 수 있다"며 "많은 교회와 사회 단체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데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브라이언 김 기자

솔로몬대학교 졸업식 거행해



솔로몬대학교가 6월 9일 월서크리스천교회에서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솔로몬대학교(총장 백지영 박사)의 제12회 졸업식이 지난 9일 월서크리스천교회에서 거행됐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학사 4명, 석사 4명, 박사 4명 등 총 12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졸업식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엡4:1-3)라는 제목으로 김영대 목사(남가주목사회회장)가 설교했고, 장학금 전달과 연혁 브리핑에 이어 백지영 총장이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 백 총장은 "개교 이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린다"고 밝혔다.

축사는 브랜트 프라이스 본교 부

총장, 탐 사피야 박사, 지용덕 목사, 이정남 목사 등이 전했고, 정영수 목사가 권면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졸업식과 더불어 목사 안수식이 열려 정호영, 씨니 김, 레니 김, 안나 이, 황성일 등 5명의 목사가 배출됐다.

삼위일체장로교회국제연합총회(Trinity International Presbyterian Church Alliance) 산하 신학교인 솔로몬대학교는 1991년 백지영 박사에게 의해 사립종교대학으로 설립, 신학대학 중심으로 운영해 오다 지난 2010년 2월 일반종합대학으로 승격됐다. 문의)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90010, 213-381-7755 정한나 기자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김동호 목사 초청 부흥회 6월 24일-26일

하늘 뜻, 이 땅에

24일 오후 5시 "자녀의 권세" 요1:12-13
25일 새벽 5시 30분 "좋은 제자" 눅 5:1-11
25일 저녁 7시 30분 "천국의 사고방식" 마 20:1-16
26일 새벽 5시 30분 "사랑과 책임" 마 5:38-48
26일 저녁 7시 30분 "세가지 시험" 마 4:1-11

www.calvaryfaithchurch.com
www.facebook.com/calvaryfaithchurch

갈보리 믿음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3300 Wilchire Blvd, L.A, CA 90010 **TEL. 213-365-8880**

영적으로 깨어나라 복음으로 일어서라

연인원 1천명 참석해 영적대각성 위해 뜨겁게 기도



영적 빈곤 상태로 진단되는 현시대, 영적 재무장을 위해 오렌지카운티 지역 교회들이 수정교회에 모였다. 최근 가톨릭에 매각되어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겨 준 수정교회에서 열린 이번 집회에서 오정현 목사는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상실한 채 굳어지고 화석화된 형식주의 신앙에 일침을 가하며 다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촉구했다. 자리를 가득 채운 오렌지카운티 지역 교회 성도들은 오정현 목사의 열정적인 말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다.

영적 회복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대, 크리스천들은 이를 위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 수정교회의 사례는 어쩌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굳어져 버린 크리스천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편안함과도, 안락함과도 거리가 먼 이민생활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유념해야 하는 것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넉넉히 즐기며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수정교회 마지막 개신교 집회 “복음의 능력이 다시 이곳에”

OC교협, 오정현 목사 초청 영적대각성집회 개최 교계 지도급 인사 및 평신도들 참석해 연일 성황 “새로운 신분을 경험하라” 영적 도전 던져



오정현 목사

오렌지카운티 지역 교회연합 영적대각성집회가 7~8일 오후 7시 수정교회에서 서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열렸다. 이 집회는 수정교회 예배당이 최근 가톨릭에 매각,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을 앞두고 열린 대형 영적대각성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집회는 OC교협이 주최하고, OC목사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남가주교협, 남가주목사회가 후원했다.

오정현 목사는 첫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로마서 5:1-11)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기 수정교회가 가톨릭으로 넘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이 있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확신한다”며 말씀을 시작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바울은 로마의 교우들에게 가능하면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고 했다. 이미 복음을 아는 그들이

왜 복음을 전하길 원했을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기록했다. 오정현 목사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 설명만 듣지 말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목사는 먼저 경직된 신앙생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경직된 형식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냉소적인 비판 주의자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했다.

오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지만 지옥은 아픔과 상처, 고통이

연속인 곳”이라며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만만한 게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즐거워할 수 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은 형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몸의 허물을 벗고 주님께 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환란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환란 중에 즐거워할 때 인격이 성숙해진다. 이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더 가까워질지 바란다.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자”고 했다.

또한 그는 이민자들을 향해, “나는 1982년도에 미국에 와서 이민생활을 보람있게 하는 분들, 어려워하는 분들을 많이 봤다”라며 “하지만 복음 가운데 기뻐하는 분들에게는 근본적인 기쁨과 감사가 흐르지 않는다.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의 평

생 소원이 무엇이라면 한번 걷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감사를 갖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

첫날 예배는 사회 염영민 목사, 대표기도 손병렬 목사, 성경봉독 윤덕곤 목사, 헌금기도 손찬우 집사, 광고 송규식 목사, 축도 한종수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날 집회는 “새로운 신분을 경험하라

(벤전2:9-10)”는 주제로 진행됐고 사회 민경연 목사, 기도 한기홍 목사, 축도 손인식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집회 찬양은 남가주사랑의교회, 베델한인교회, 은혜한인교회, 알바인침례교회, OC제일장로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동신교회, HYM찬양팀 등이 맡았다.

토마스 맹 기자



오렌지카운티 지역 교회연합 영적대각성집회가 수정교회 예배당에서 열렸다.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빠른 자동차 보험 알선

“전월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를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24hr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 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않고 한방으로만 암치료를 유명한 한동규 박사님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연락처 : **임마누엘선교회** T. 213-235-5800 / 213-252-9036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한치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한치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리는데 새빛이 되겠습니다.

천연한약재로 증상별 조제 처방 김기약 \$20-\$30선 가능
여행자보험/건강보험/교통사고(스마트폰 검색가능)

323-735-6365

3130 W. Olympic Blvd, Sutt 380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하버드)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오피스: 323.966.5444

그렉 (Greg) 직통: 213.278.5927
오피스: 323.556.5386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어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www.LAORT.edu

•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 New York : Forest Hills Tel. 718.261.5800

• Chicago : Skokie Tel. 847.324.5588

약도 [Bus 20번] Lajolla Fairfax ORT 맥도널드 Wilshire

기독교의 뿌리를 찾아서



류당열 목사가 한기총 미주총회를 대표해 정학봉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동아시아 기독교역사 연구에 평생을 몸담아 왔으며 이 분야 최고 권위자 중 한명으로 알려진 정학봉 목사(서울제자훈련원장) 초청 세미나가 "기독교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지난 11일, 12일 벨렝장로교회(변영의 목사)에서 있었다.

이 세미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미주총회(류당열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김영대 목사), 로스앤젤레스교역자협의회(표세홍 목사), 미주기독교목우회(양승걸 목사), 미주대한신학대학교(강부웅 총장)가 공동주최했다.

정 목사는 강의에서 "제가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 본 결과 5세기 때 벌써 중국과 신라까지 기독교가 들어 있었다. 기독교가 아시아와 세계사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역설했고, "지금 우리가 새로운 기독교 역사를 써 가고 있다"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명령을 기억하고, 거기에 걸맞는 제자를 양성해 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강의를 마쳤다.

이중 지난 12일 집회는 박효우 목사가 인도했고, 최경섭 목사가 대표기도를 했으며, 표세홍 목사가 감사소개를 했다. 이동명 목사가 광고를 맡았으며, 양승걸 목사가 축도했다. 빅터 박 기자

교역사를 연구해 본 결과 5세기 때 벌써 중국과 신라까지 기독교가 들어 있었다. 기독교가 아시아와 세계사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역설했고, "지금 우리가 새로운 기독교 역사를 써 가고 있다"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명령을 기억하고, 거기에 걸맞는 제자를 양성해 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강의를 마쳤다.

이중 지난 12일 집회는 박효우 목사가 인도했고, 최경섭 목사가 대표기도를 했으며, 표세홍 목사가 감사소개를 했다. 이동명 목사가 광고를 맡았으며, 양승걸 목사가 축도했다. 빅터 박 기자

남가주광역교회 좋은 만남의 축제 마쳐

남가주광역교회(정우성 목사)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오서택 목사(은혜비전교회), 서종운 목사(새생명중앙교회), 정우성 목사가 참여하는 '좋은 만남의 축제' 부흥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중 주일예배에서 정 목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영원한 생명, 풍성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 목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

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와 부활의 생명이고, 성령을 통해 흘러 넘치게 돼 있다.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좋은 만남의 축제를 위해서 광역교회 성도들은 5월 1일부터 40일 동안 연례 금식기도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광역교회는 좋은 만남의 축제를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빅터 박 기자

거룩함으로 세상 변화시키자

→ 1면으로부터 그는 "칼빈은 3명의 아들을 낳았으나 출생 즉시 모두 사망했고, 결혼 9년째 되던 때엔 아내마저 사망해 큰 아픔을 겪었다"며 "그렇지만 그는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거룩한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킬 마지막 보루와 같은 곳이다. 그러므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미국은 물론 전세계가 동성애에 몸살을 앓고 음란을 즐기며, 성적 정체성의 혼란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정의 거룩성을 부르짖으며 거룩성 운동에 앞장서야 할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목사는 NSM의 5대 실천 강령 중 하나인 거룩한 생활운동과 칼빈의 신앙사상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칼빈은 경건생활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그는 사회와 국가 개혁을 함에 있어서 개혁은 신학부분이 아니요 생활부분이다"라고 표현했듯이, 거룩한 생활운동에 힘썼다"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한 생활의 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가지 부끄러운 행동들로 인해 손가락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생활운동은 반드시 실행해야 할 운동이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맹 기자

“개인의 변화에서 시장, 도시, 그리고 국가의 변화로”

트랜스포메이션 LA 컨퍼런스에서 에드 실보소 박사 강연



에드 실보소 박사(왼쪽)이 컨퍼런스에서 세계변혁을 위한 중추적인 패러다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강의를 살롬 김 박사(오른쪽, 웨퍼드대학교 신학대학 학장)가 통역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입니다. 일은 곧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변혁〉, 〈사업을 위한 기름부으심〉, 〈기도전도〉의 저자이면서 도시 선교 전략가로 잘 알려진 에드 실보소(Ed Silvano) 박사가 한 말이다.

9일 가든스윅호텔에서 열린 '트랜스포메이션 LA' 컨퍼런스의 주제 강사로 초청된 그는, 세계변혁을 위한 중추적인 패러다임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CEO 출신 목회자인 그는 이날 기업과 교육과 정부의 집합체인 '시장(Market Place)'이란 개념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일상 생활에서 크리스천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

는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각종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의 구축을 위해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르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자각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보기도를 통한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기도를 통해 가정과 교회, 도시의 영적 기강도가 바뀔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에 대하여 그가 실제로 사역했던 아르헨티나의 산 니콜라스 시를 비롯해 여러 지역의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에드 실보소 박사 외에도 전도집회 전문 복음전도사 루이스 빨라오 목사, 8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인도네시아 거대기업 LIPPO의 부회장 로이 터타치, 〈7전8기의 사나이〉의 저자 신실 장로 등도 스피커로 나서서 강증을 전했다.

정하나 기자

예장 미주합동총회 제33회 정기총회 열려

신임총회장에 신상원 목사 선임돼



예장 미주합동총회 제33회 정기총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라는 주제 아래 해돋는교회에서 개최했다. 제일 앞줄 우측에서 네번째가 신임총회장인 신상원 목사다. 이 교단은 총회 이후 수련회도 연달아 열고 은혜충만한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2일 LA 소재 해돋는교회(정갑식 목사)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 제33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 총회에서는 한 회기를 이끌 임원진을 선출하고 부서별 보고를 했다.

총회장에 신상원 목사, 부총회장에 신창기 목사, 박재환 장로, 서기에 최순길 목사, 부서기에 안경찬 목사, 회의록서기에 김광석 목사, 부회의록서기에 박창원 목사, 회계에 지윤성 목사, 부회계에 최다윗 목사가 선임됐다.

예배의 사회는 신상원 목사가 맡았고 안경찬 목사가 대표기도

를 했으며 김광석 목사가 성경봉독을 했다.

전임 총회장인 전요한 목사가 "나도 너도 변해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현금기도는 나정기 목사, 축도는 문광현 목사가 맡았다.

미주합동총회에 소속된 노회에

는 거주노회, 미주서부노회, 뉴욕노회, 동북노회, 중남부노회, 아메리카노회가 있다.

한편, 이 교단은 총회에 이어 12일부터 14일까지 샌루이스 오비스포시에서 수련회를 열기도 했다.

빅터 박 기자

살롬장애센터 신축 이전

지역 사회 장애인들을 찾아내어 섬깁니다! 재활운동실 무료 오픈

운영시간

재활 운동실 오픈(월~금)
오전 9시30분 ~ 오후 4시 30분

**미용봉사
한방치료 봉사**

살롬 장애인선교회
Shalom Disability Ministries

Tel. (323) 731-7724
2869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성령을 좇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16-25

장재효
서울 성은교회 목사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날 뻔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병이 있어서 너무 허약해진 가운데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쉬기 위해서 갈라디아에 갔습니다.

휴양과 병 치료를 위해 갔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병 문제로 인해서 육신이 약하다고 쉬거나 세월 허송하는 일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그를 붙들여 충동하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역사하시어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이 증거하시는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이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온갖 체험을 통하여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다른 곳으로 선교하러 떠났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 예수 믿는 것은 이단을 따르는 것이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폄하하며 선동했습니다. 그럴 때 갈라디아 신도들이 성령으로 가꾸어 주신 믿음을 헌신짝 버리듯 내던지고 다시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선동에 미혹되어 구원얻은 것이 무효가 되는 폐단으로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 성령은 충만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4:12-14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도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이 병들어서 그곳에 쉬러 갔다가 하나님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하심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함은 바울이 다른 병자를 위해 기도해 주면 다 마음을 얻는데 정작 바울 자신의 병은 마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고 그 병자의 병을 고쳐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 드리는 기도를 했을 뿐이며 병을 고치신 이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스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하여 온전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7-9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믿은지 얼마 안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하늘소망의 기쁨과 은혜는 충만했지만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귀신도 도망가고

병도 치유하는데 정작 바울 자신의 병은 고침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시험에 들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그를 업신여기거나 그것을 시험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갈4:15 말씀과 같이 도리어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멀쩡한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영적인 성과를 위해 바울의 입장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눈이라도 빼서 바꿔주고 싶을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갈4:16)"고 말합니다. 악령을 물리치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소망을 회복 받는다고 애당겨 일깨워 줌도 오히려 마음의 벽을 쌓고 영원히 돌아서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불어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갈4:17)고 합니다. 즉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의 선동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결국은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 육체의 절제가 있어야 한다

본문 갈라디아서 5:16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들은 성령을 좇아 행하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앞장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뜻을 거역하고 성령의 소원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둘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가꾸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거듭난 심령의 속사람은 하늘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어 쓰임 받는 것이 소원인데, 육체에 이끌려 세속적 욕구로 휩쓸리면 성령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하나님께 죄고 하신답니다. 하나님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좇아 행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생활하는 생활의 열매는 사랑하고, 기쁘고, 즐겁고, 화평을 시도하며, 오래 참고, 남을 불쌍히 여기며, 선한 뜻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으며 성격 자체가 온유합니다. 이런 삶은 자기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남들과 원수 맺을 일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절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소망,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는 육체의 세상 쪽으로 타락하려는 죄악된 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하는 절제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며 성령과 더불어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가로막지 못합니다. 사탄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가 원하는 세속적 정욕은 회개하고 거듭 나던 날 그 시간부터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그 죽은 것을 장례 치루노라고 세례 받았습니.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은 절제하는 삶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육이 죽

어야 영이 살고 영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본문 25-26에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찌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찌니라" 하고 로마서 8:5에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3.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쎄다쌍 선교사 글에 히말라야 산 중턱에 3800미터 고지에 있는 랑겏 마을이 나옵니다. 쎄다쌍이 어떤 목사님과 그곳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산적들이 사는 깊은 산동네로 굉장히 높고 추운 곳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다음 해에도 부흥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해가 지나 그곳을 가다가 티벳에 계신 목사님 한 사람을 만나 함께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던 중 큰 눈이 오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던 도중에 신음소리가 들려 살펴보니 낭떠러지 계곡 밑에 어떤 사람이 눈 속에 묻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쎄다쌍이 티벳 목사님한테 저 사람을 구해서 함께 가지고 제안을 했지만 그 목사님은 도리어 쎄다쌍에게 인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겸손히 "우리가 부흥회 가는 것도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인데 사람이 부흥회 참석해야 그 영혼이 살 것 아니겠느냐"면서 설득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한 번 더 저 사람을 구하러 내려가자고 권유했더니 해가 저서 이미 어둡고 기온은 영하 20-30도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하려다가 우리까지 죽게 될거라고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간청을 하니 "당신 같은 사람하고 부흥회 하려고 같이 다니는 내가 바보다. 나는 내일 부흥회를 위해서 먼저 간다"고 하고 가 버렸습니다. 내일 부흥회를 위해 먼저 간다고 하는 그 목사님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쎄다쌍의 마음 속에서 성령이 "저 사람을 두고 가면 안되고 저 사람을 살려 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부흥회는 내일 일이고 오늘은 저 사람 살리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어렵게 나무 뿌리들을 잡고 절벽 아래로 내려가 눈을 헤치고 보니 그 사람은 발목이 부러져 견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힘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 사람을 붙들고 일으켜 등에 업고 두 팔로 자신의 목을 안으라 하고 나무 뿌리들을 붙들고 매달리다시피 해서 올라오니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업고 그 길을 가는데 등에 업힌 사람이 발목을 부러졌지만 자꾸 말을 붙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쎄다쌍이 온다고 해서 은혜받기 위해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쎄다쌍은 자기가 쎄다쌍이라고 밝히면 이 사람이 업혀가지 않을 것 같아 자기도 은혜 받으러 가는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몸도 얼지 않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업고 가다가 발이 장애물에 걸려서 돌이 나뉘어졌었습니다. 발로 눈을 헤치고 보니, 어제 저녁에 먼저 간 사람이 그만 발에 동상이 걸린채 넘어져 동사했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고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사는 법을 여기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발목 부러진 사람이 아니었다면 쎄다쌍도 가다가 티벳 목사가 얼어 죽은 그 자리에서 얼어 죽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은혜 받으러 가는 사람을 낭떠러지에 미끄러지게 하시고 발목이 부러져 넘어지게 해서, 두 사람이 그 사람을 교대로 업고 가서 세 사람 다 영하 40도가 되는 추위를 이겨 낼 수 있도록 설렘하셨다는 것입니다. 쎄다쌍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따라 성령을 좇아 행하는 영적인 사명자였습니다. 그러나 티벳 목사는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성령을 받지 못했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는 성령을 좇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이런 섭리 가운데서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내가 육적으로 사는가 영적으로 사는가, 순간순간 어떤 상황을 접할 때마다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적기준으로 아니면 육신의 입장으로 어느 편으로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부디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말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토요일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담임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교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담임목사 청빙

Albany, NY에 위치한 올바니 한인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초청합니다. 본 교회는 PC USA에 소속된 교회이며, 자체성전을 가진 41년된 교회입니다.

가. 자격

1. PC USA에 소속 또는 가입요건이 되시는 분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한국 또는 미국내 신학교에서 안수를 받으신 분
3. 2년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4.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
5. 한국어에 능통하고, 영어구사에 불편이 없으신 분

나. 제출서류

1. 이력서 (추천인 명단 3인 이상 포함)
2. 자기소개서 (목회비전 및 신앙간증 포함)
3. 가족소개서 (가족사진첨부)
4. 최종학교 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사본 각1부
5. 설교 테이프 또는 영상설교 (가능하면 설교원고 첨부)

다. 서류마감: 2012년 6월 15일

라. 서류제출처: 이메일접수 및 일반우편접수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1. 이메일: kpcalbany@pcusa.com
2. 일반우편: Nam Soo Lee
23 Lincoln Mall
Schenectady, NY 12309
3. 문의사항: 이남수 장로 (518) 345-4887 또는 namsoo1212@gmail.com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교회에 대한 안내는 교회 웹사이트, www.kpcalbany.org에서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사랑교회에서 13년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일년에 두번씩 개최하게 되었으나,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과 봉사자분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장소: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2012년 12월 15일(토) 오전10시 / 2013년 6월 15일(토) 오전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1등 1명에게는 100불 상당의 물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상당의 물품

3등 3명에게는 각각 30불 상당의 물품 *** 그리고 찬송가를 모두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 상당의 물품이 주어집니다. ***

*상금 및 상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이름: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협찬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뉴욕총신대학교 서부분교 필립프 오케스트라, 엘에이 사랑의 교회, 생명나무교회, 기독교일보, 한울종합보험, 마동환변호사그룹, David 백변호사그룹, 최진욱변호사그룹, 울림 피 칼 국수, Precision, 울림피 떡집, Ultra light ing, 끈지암 소머리국밥, 남원골추어탕, 재미 남가주 향해도도민회, 일천만인산가족위원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Richway Biomat

장애우사랑교회

☎ 연락처: 213-705-0404 / Fax: 213-251-8930

주소: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장애우들에게 사랑 실천해 온 13년

살롬장애인선교회 창립 기념 및 헌당
현재까지 3만7천여 명 도와
“사랑은 휠체어를 타고 계속된다”



창립 13주년을 맞아 살롬장애인선교회가 케익을 커팅하고 있다.

지난 13년간 말만이 아닌 실질적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곳이 있다.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는 총 24차례에 걸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운동을 통해 휠체어 7010대와 기타 의료 보조기구 30600여 점을 37000여 명의 해외 장애우들에게 지원해 왔다. 살롬장애인선교회는 지난 7일 그동안의 타향살이를 접고, 새로 이전한 성전에서 창립 13주년 및 헌당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사회 박모세 목사, 대표기도 김세환 목사(LA연합감리교회), 설교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축사 김문일 목사(LA남서울은혜교회)와 손병렬 목사(남가주동신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예배에는 여러 교회들이 참석했을 뿐 아니라 많은 축하객들이 몰려 창립과 헌당을 함께 기뻐했다. 박모세 목사는 “지난 13년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전했고, “지금의 선교회가 있기까지 많은 교회의 지원과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다. 지난 시간을 회고해 보면 아파서 먼저 하늘나라에 간 장애우들이 생각난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앞으로 계속 25차, 26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를 통해 해외 장애우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전했다. 설교는 은혜미야 8장 1절로 6절까지의 본문으로 “건축 후에 백성들이 칭찬 일”에 관해 최홍주 목사가 전했다. 그는 “긴

세월 동안 타향살이 후에 이곳으로 옮겨 온 것을 축하한다. 새로운 선교센터에서 말씀과 기도의 부흥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을 만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헌당 경과보고에 이사장인 유영기 목사(나성북부교회), 헌금기도에 류재덕 목사(밸리연합감리교회), 축도에 유기환 목사(버뱅크한인장로교회), 특송에 선한목자장로교회 여성중앙단이 함께 했다. 한편, 오는 7월 8일 제25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기념 마련을 위한 음악회인 ‘휠체어 사랑 이야기’가 박모세 목사 독창회로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빅터 박 기자



이날 행사에는 장애우들 및 그들의 가정과 그들을 지원해 온 여러 교회들이 참석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온 이 단체의 헌당을 축하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으라”

20주년 맞은 올림픽장로교회 감사 부흥회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정정수 목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7일부터 10일 까지 감사부흥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에는 캐나다서부장로교회 담임 박현승 목사가 나흘에 걸쳐 밤낮으로 말씀을 전했다. 9일 토요집회에서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31-33절을 본문으로 “디딤돌 인생”에 대해 설교했다. 그는 올림픽장로교회가 20주년을 맞아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의 구

원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림픽장로교회는 지역사회를 향한 구제와 봉사의 일환으로 예배당을 기독교 단체들에 거의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 현재 한인연장자센터 등이 이 교회를 빌려 무료 식품 배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JAMA, 밀알선교회, 더처치를 비롯해 3개의 합장단이 예배당을 빌려 쓰고 있다. 정한나 기자



캐나다서부장로교회 박현승 목사가 9일 올림픽장로교회 감사부흥회 강사로 초빙돼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선교태권도협 국기원 승단심사 성료



정종오 회장, 아놀드 정 관장, 빅터 정 관장, 폴 박 관장 등 심사위원들과 환호하는 승단자들.

세계선교태권도협회(회장 정종오)는 6월 2일 토요일 오후 남침례신학대학원 체육관에서 총효태권도(관장 아놀드 정) 5개 지관의 승단심사 지원자 90명과 가족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매년 실시하는 “국기원 승단심사”를 개최했다. 국기원 해외자문위원 정종오 회장이 심사관으로 배석한 가운데 심사

위원 아놀드 정 관장, 빅터 정 관장, 폴 박 관장의 진행으로 90명의 수련생이 심사를 받았다. 승단심사 이후에는 수련생의 부모들이 심사위원으로부터 받은 블랙벨트를 직접 자녀에게 매어주는 세리머니와 기념사진촬영 시간이 이어졌다. 토마스 맹 기자

교회연합 돕는 체육대회 되길

OC전도회 주최 교회연합 체육대회 및 사생대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주최로 오는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리토스 밸리크리스천하이스쿨에서 교회연합 체육대회 및 사생대회가 열린다.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매해 이 지역의 10여 개 한인 교회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의 장이 되고 있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회장인 손찬우 집사는 “1981년도에 배구 대회

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처음에는 6.25를 기억하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교회들을 연합하게 하는 좋은 장이 되고 있으며, 승패보다는 여러 교회가 함께 하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장소) 10818 Artesia Blvd. Cerritos, CA 90703 문의) 714-719-5312 빅터 박 기자

골든게이트침례신학교 이중언어과정 신설

Preview Day 행사로 한인들에게 문 활짝

명문 골든게이트침례신학교가 이중언어과정을 8월 26일 개강하는 것에 맞춰 이것을 소개하는 ‘Preview Day’ 행사를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브레아 소재 Grace Covenant Community Church에서 열었다. 이 행사에서는 안상희 교수가 이중언어과정을 소개하고, 캠퍼스 투

어, 입학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을 도와 주었다. 또 방문객을 위해 간단한 스낵과 음료가 제공되기도 했다. 학교 주소) 251 S. Randolph Ave. Brea, CA 92821 문의) 714-256-1311(ext. 24) 혹은 keb@ggbts.edu 빅터 박 기자

미국예수교장로회 제 24기 목사안수식 예정

미국예수교장로회 총회(PCA)가 2012년도 제 24기 목사안수식을 오는 6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 월드 타운교회(133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에서 거행한다. 임직자는 최학선 선교사다. 총회장

인 이복세 목사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기뻐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 교단은 지난 5월 <땅굴 교회의 비밀>의 저자 신필수 목사를 초청해 연합 부흥회를 개최한 바 있다. 빅터 박 기자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칼라 카피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

우리방송 라디오 120분 토크쇼

우리방송에서는 변화하는 **메디칼 / 메디케어** 수혜자의 이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 합니다.

- 2013년 부터 변화하는 메디칼 / 메디케어 수혜자의 혜택.
- 메디칼 / 메디케어 수혜자의 의료 혜택 선택안.
- 메디칼 / 메디케어 수혜자의 ADHC 플랜.

방송시간: 6월 20일 2012년 12시 부터 2시 까지

출연자: 서울 메디칼 그룹 의학박사 **차민영**
 하나 건강 보험 **DAVID KANG**
 민족학교 의료봉사 담당자 **김종란**

소셜 사무실 **그레이스 이**



메디칼/메디케어 소지자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후원: 서울 메디칼 그룹, 하나 건강 보험, 민족학교

HANA HELATH INSURANCE SOLUTIONS, INC LIC#:0H66712

☎ 213-500-4563 ☎ 1-855-386-3088

하나건강보험 에서는 한인 시니어를 위해 아래 사항을 도와 드립니다.

- 1947년 에 태어나신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 메디케어 파트 A 나 B 의 보험료를 면제하여 주는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 처방약을 구매 하실때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아주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는 엑스트라 헬프 플랜의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 메디케어 파트C 플랜의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 메디케어를 처음 신청 하십니까?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엑스트라 헬프나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에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헬스는 선생님의 최선의 혜택을 위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 헬스의 **4개의 오피스**중 가장 **편리한 곳**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메디케어나 메디칼 플랜의 궁금 한 점은 저희 WEBSITE WWW.HANAHEALTH.NET 에 방문하여 Q & A에 적어 주시면 보다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DAVID KANG
 LIC #0H66712
 714-614-0903
 LA 사무실
 3600 WILSHIRE BL #1620
 LOS ANGELES, CA 90010



ALLEN MIN V.P.
 LIC# 0D19973
 213-272-2412
 ROWLAND HEIGHTS 사무실
 1722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MI YOUNG HONG V.P.
 LIC# 0672051
 714-715-6345
 OC 사무실
 6011 ORANGETHORPE AVE #A,
 BUENA PARK, CA 90620



SARA IM INSURANCE
 LIC #0F07269
 310-702-7006
 TORRANCE 사무실
 20695 S. WESTERN AVE #240,
 TORRANCE, CA, 90504



SAMUEL GO INSURANCE SERVICES. LIC # 0G89047
 310-780-7777
 LA 사무실
 3600 WILSHIRE BL #1620
 LOS ANGELES, CA 90010

“성경에 관해” 설교하지 말라 “성경 자체를” 설교하라

에반젤리아대학 총장 신현국 목사 인터뷰



에반젤리아대학 총장 신현국 목사

신현국 목사. 보수 중의 보수라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의 미주총회라 할 수 있는 재미고신총회의 직영신학교인 에반젤리아대학의 총장이다. 목사이자, 교수이고, 학자이며, 총장이다. 70년대 한국 기독교가 급성장하던 때에 흔히 이단이라고 부르는 유사종교 연구로 큰 업적을 쌓았고 교계에서 큰 명성을 날리기도 했다. 1968년부터이니교수생활만 34년째이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표면이다.

이제 이면으로 들어가 보자. 신현국 목사.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한상동 목사를 빼놓을 수 없다. 신 목사는 한국 보수신앙의 자존심,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거성인 한상동 목사 밑에서 신앙과 목회를 배웠다. 한 목사가 신사

참배를 거부한 출옥성도들과 개척한 부산 삼일교회에서 신 목사는 부목사로 시무하며 가까이에서 그의 목회를 접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목회 신조가 신 목사의 신조가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국의 고신총회가 한상동 목사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재미고신총회는 그의 제자인 신 목사에 의해 시작됐다. 1983년 고신총회가 동포사회와 미국 복음화를 위해 교단을 미주에 설립할 때 그 책임자로 파송된 이가 바로 신 목사다. 그가 처음 미국에 발을 들였을 때 전무했던 교단은 이제 미주 7개 노회와 130개 교회로 성장했다. 그가 그 이근삼 목사의 유지를 받들어 에반젤리아대학 총장이 된 이후, 이 학교 역시

연방정부의 인가에 더해 TRACS의 학위 인가까지 받아내며 급성장했다.

그는 신학교 1학년 학생을 1학년이라 부른다. 2학년은 2학년이라 부른다. 졸업반은 3학년이다. 그런데 신학교정을 다 마치고 졸업한 학생은 4학년이라 부른다. 목회를 30년 했다면 33학년인 셈이다. 신 목사는 “목회는 배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늘 강조한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목회자의 준비일 뿐이며 목회하는 그 과정 자체가 늘 연구와 배움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설교자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양떼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기대할 수 있느냐”며 매신자로서의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첫째, 설교는 성경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어야 한다. 요즘 목회자들의 설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는 식인데 이런 설교는 성도들에게 독이다. 둘째, 결코 쉽지 않은 성경의 메시지를 쉽게 그 자체로 설교하는 것이야말로 설교의 진수다. 저 뒷자리의 무식한 할머니라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성경의 역사다. 그는 “저의 50년 목회를 돌아보니 성경의 조맹 없이는 성경을 설교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보수 중의 보수인 고신에서 성경을 말씀하시나”고 물었더니 “흔히 장로교가 말씀에는 강하지만 성경에는 약하다고 보는데 진정한 칼빈주의는 성경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말씀과 성령이다”라고 단언하며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성령이 역사해서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성경

의 텍스트는 텍스트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구원에 있어서 정의는 바로 영적 출생을, 성화는 영적 성장을 가리킨다”면서 “의롭다 인정받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성장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정한 칼빈주의는 말씀뿐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 신학교에서는 ‘신학 공부 못해도 목회 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학문과 목회를 분리하는데 화려한 개혁교회는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신앙이 좋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래서 그런지 에반젤리아대학은 학사 관리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모든 과목에서 B학점 이상을 요구하며 수업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뒤늦게 쉽게 쉽게 넘겨주는 게 없다. ‘영혼을 다룰 의 사들을 키워내는 학교가 설령설렁 했다가 큰일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선교한학과 등 다양한 과를 증설해 전세계로 파송될 선교사들까지 준비시킨다는 계획이다.

신 목사는 끝으로 “문화를 빼앗긴 기독교”에 관해 지적했다. 그는 “유리교회가 현재 무너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기독교 문화를 여전히 담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어떤가? 100년만에 크게 성장하면서 열심히 있어서는 최고라 할 만하지만 그에 걸맞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 문화, 기독교 가치관을 만들어내진 못하고 있다. 이것이 저의 후학들이 담당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당부했다.

김준형 기자

치유목회자 박창갑 목사 명예신학박사 학위 받아

한 영혼의 소중함 깨닫고 치유목회 감당해 와

최근 거행된 웨퍼드대학교 학위 수여식에서는 선교전략가인 에드 실보스 박사, “내 이름 아시죠”란 CCM으로 유명한 토미 워커 등 쟁쟁한 인물들이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들의 이름 앞에는 늘 ‘세계적인’이란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그런데 이날 박창갑 목사도 그들과 함께 명예신학박사 학위 수여식에 그 이름을 올렸다. 웨퍼드대학 측은 “박 목사의 내적 치유 사역에 있어서의 큰 업적과 헌신을 인정해 이 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박창갑 목사는 웨퍼드대학교로부터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 목사는 평신도 사역자 출신이다. 대한항공에서 15년간 근무하며 김포국제공항연합신우회, 대한항공신우회를 조직해 직장복음화의 일꾼으로 섬겼다. 그러던 중 그는 목회자로 소명을 받게 이르렀다.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로 안수받은 그가 처음 찾아가는 곳은 남미에 분단된 그 경계, 애기봉에 위치한 해병대 기지였다. 그곳에서 해병, 주민들과 함께 하며 그는 꿈을 버렸다. 아니 자신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찾았다고 하면 더 정확할 듯 하다. 남에게 뒤지지 않을만큼 화려한 사회 경력, 어디 빠지지 않는 사역경력이 있었지만 큰 교회를 이루겠다는 꿈을 버리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미국으로 이민해 시애틀에 열방열매교회를 개척했다. 그 목회의 핵심은 치유목회다. 그는 이민가정의 심각한 문제와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에 주목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이민목회라는 철학을 세웠다.

그는 오히려 “성경의 컨텍스트보다 텍스트에 주목하라”고 말한

다. 그는 “너무도 많은 목회자들이 현대의 상황만을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기보다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다”면서 “성경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담대히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을 무시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해답이라는 뜻”이라고 재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본질에 충실한 “구식” 목회로 시애틀에 치유목회의 바람을 일으키며 기독교영성학과 영적 경험, 어디 빠지지 않는 사역경력이 있었지만 큰 교회를 이루겠다는 꿈을 버리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은 것이다. 그는 “세련됨보다 성장적인 치유사역,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치유사역이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민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고 후진을 양성하라는 뜻으로 믿는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현재 영성 및 상담에 관해 교수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세계비전교회 제2대 담임에 김영빈 목사

세계비전교회는 지난달 20일 담임목사 청빙 후보자에 대한 제직회의 결정 후, 김재연 담임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27일 공동의회 투표를 통해 90% 이상의 찬성으로 김영빈 목사 담임 청빙을 확정지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청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빈 목사

김영빈 목사는 중학교 2학년 때 온가족이 남미로 이민한 1세대 목회자로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

서 목회학 석사(M.Div) 학위를 받고 미국 동부 지역에서 주로 청소년 및 청년, EM 사역을 담당해 왔다.

남가주에서는 남가주사랑교회와 베델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긴 바 있다.

빅터 박 기자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증,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 (213) 736-6625
www.indianaloevera.com

갈릴리신학대학 & 랭귀지스쿨
GALILEE SCHOOL OF THEOLOGY & LANGUAGE SCHOOL

목회학석사 (M.Div.) 신학석사 (S.T.M.)
목회학박사 (D.Min.) 신학박사 (S.T.D.)

SEVIS인가 대학, 자체 I-20발행
ESL 프로그램 (음성학적 영어학습방법론을 개발)

Tel. 213-746-1004 / FAX. 213-746-5004
1000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 학생 모집 (2012년도 가을학기)

뉴올리언즈 침례신학 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2학년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 1. 지원 자격**
M.Div. (목회학 석사) 혹은 이와 동등한 학위 소지자
M.Div.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역 경험
M.Div. 과정 GPA 4.0 만점에 3.0 이상의 평균학점
- 2. 제출 서류 및 마감일**
제출서류: 입학 원서 패키지는 아래 전화 및 이메일로 요청시 이메일로 발송
마감일: 2012년 7월 5일
입학 서류 심사 결과는 개별통지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 3. 입학안내**
유학생에게 I-20발급
Toefl 불필요
모든 세미나 및 워크샵은 아틀란타에서 진행
- 4. 프로그램 구성**
워크샵 (3과목 6학점)
세미나 (6과목 18학점)
졸업논문 (6학점)
- 5. 입학문의**
목회학 박사과정 Director (이종길 교수): 셀폰 (404) 335-8150, 이메일 jglee@nobts.edu
한국에서 연락처 070-8245-8210
웹사이트: http://www.nobts.edu/CME/korean-d.-min.html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p>미주장로외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www.ptsa.edu</p>	 <p>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d, to the world!</p> <p>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1 / Fax: 424-257-8136 / www.cohenuniversity.ac</p>	 <p>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p> <p>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 Fax: 213-381-0010 / www.iruniv.org</p>
 <p>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p> <p>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 Fax: 818-435-2441 / www.myccu.us</p>	 <p>솔로몬 대학교 Solomon University, SU 망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 (BA, D.Min,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총장: 백지영 목사 부총장: Dr. Brent Price</p> <p>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 Fax: 213-487-737 / www.solomonuniv.org</p>	 <p>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p> <p>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 hjung3155@gmail.com</p>
 <p>국제비전대학교 정시/수시: (Offline, Online 강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D. Min., D.Miss., Ph. D.) I-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p> <p>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93-5745 / 213-610-4989 / www.vision.edu</p>	 <p>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화 목사</p> <p>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 Fax: 310-609-1415</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 http://korean.fuller.edu</p>	 <p>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A., CA. 90019 Tel: 323-731-9819</p>	 <p>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p> <p>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9-8987</p>
 <p>미주개혁신학대학교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p> <p>2706 Wilshire Blvd. 1st Floor, Los Angeles, CA 90057 Tel: 213-736-6500 / Fax: 213-736-6504 / reformeduniv.org</p>	 <p>아메리칸 신학대학 및 대학원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p> <p>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7356 / Fax: 818-773-8868 / www.atsusa.org</p>	 <p>미션신학대학교 하나님 앞에 섰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p> <p>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Tel: 562-869-7497 / www.mcuuniversity.org</p>
 <p>바울성경대학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p> <p>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Tel: 562-394-3342 / paulbiblecollege@gmail.com</p>	 <p>위클리프대학교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는 개혁적인 신앙과 바른 성서해석을 가르쳐 여두움을 밝히는 지도자, '개혁의 새벽별' 존 위클리프 같은 개혁자를 길러낼 것입니다</p> <p>14631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4 Tel: 562-777-7078 / www.wyclifuniversity.net</p>	 <p>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p> <p>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 www.aeui.org</p>

제23회 여름산상대부홍성회

세계 장애인과 함께

With the physically challenged of the world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3)

단기 선교를 그리운 고국 한국에서 장애인과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문	고문	고문	증경이사장	증경이사장	직전이사장	상임회장	증경회장	증경회장	실무위원장	홍보위원장			
													
홍형순 목사 삼양장리교회	배동윤 감독 청양리교회	추연호 목사 온파리교회	김종훈 감독 월곡리교회	김태식 목사 상양중앙리교회	구자경 목사 정릉리교회	고은기 목사 보통교회	김영덕 목사 삼회교회	최동출 목사 중곡영광교회	김상빈 목사 연진교회	김민교 목사 행야리교회			
진행위원장	21C 위원장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박복영 목사 공주회교회	이현승 목사 남치교회	신필수 목사 안양동교회	김성희 목사 하위리교회	김승자 목사 뱃빛중앙교회	이일성 목사 순복음삼리교회	김경식 목사 임마누엘교회	정남준 목사 향촌제일교회	송오섭 목사 공주교회	김동수 목사 반석교회	김의택 목사 약산성령교회			
사과고지부장	미주지부장	뉴욕지부장	하와이지부	필리핀지부	강동지부장	김제지부장	의정부지부장	아산지부장	부평지부장	홍천지부장	찬양강사	복음가수	
													
안성기 목사 남산교회 708-307-8280 630-455-0063	이종 목사 토렌스 사영교회 323-528-0776	차철희 목사 뉴욕중앙교회 646-270-5522	백혜현 총무 하위리중앙교회 808-383-6962	서삼을 선교사 서한교회 070-7433-7506 6305-678-2856	김연숙 목사 수경교회	신보화 목사 안나누엘교회	강은식 목사 삼승교회	임민희 목사 출기교회	조정숙 목사 제일중앙교회	이상욱 목사 불광동산교회 017-333-8291	고해옥 사모 010-3710-6418	전하리 권도사 010-3710-6418	복음가수

이사장 김홍수 장로
인명침례교회

대표회장 김천기 목사
한동교회

사무총장 고향수 목사
엘림교회

LA지부장 김천환 선교목사
사랑의 피 선교회

단기선교문의

로스앤젤레스	한국
지부장 김천환 선교사 213-736-6625(사랑의 피 선교회)	고향수 목사 010-8870-5642, 02-2632-4806
하와이 지부: 백애현 총무 808-383-6962	

우리는행: 173-245274-13-002
Email: ellim54@hanmail.net
후원: 극동방송, 미주복음방송, 미주기독교방송,
시카고기독교방송, 한·장선, 서울운전기사 선교연합회
당일출발정거장: 영등포구청 지하철역 옆 (오전 10시)
(5호선2호선차차 영등포구청 옆)

일시: 2012년 7월 23일(월)~27일(금) 까지
집회: 새벽6시·낮11시·저녁7시30분

주최: **엘림장애인선교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가 30-2 유통상가 412-1
www.ellim1004.com / Tel. (02)2632-4806 · 2634-6557 Fax. 2679-5642

장소: **포천. 한국중앙기독교원**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성동4리 산 60-1번지(파주출)
Tel. (031) 531-1151~2, 533-0602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EM)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 (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현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회 새벽 6:20

갈릴리션교회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침례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항하는 교회. 천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후 1:00 오전 7:00 (토)

글렌데일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윤선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글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김성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사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손병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침례)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 **박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6:30 (화-금)
유치, 유년부, 중고등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는 교회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1부예배 오전 8:00 한아침년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EM/Youth예배 오후 12:00 오전 6:00(토)
AWANA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매월 마지막주)

늘푸른선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 92806
T. (714) 632-9191, 9192 / missionway.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침례예배 오후 1:00
2부예배(EM) 오전 9:45 중교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 오후 8:00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기도회 오후 8:00
중교등부예배 오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청년토요예배 오후 6:00

둘로스교회
예수님의 제자되기를 주님과 사명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사바다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은 믿으실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EM예배 오후 7:30
학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성회예배 오후 12:00

벤틀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학교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말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연합회 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한국어 학교 오전 9:30 (토)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15617 Burwood Rd., Victorville, CA 92394
T. (760) 220-3263, (760) 542-9366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현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1부예배 오전 8:0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무의 가치를 보나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7:30 5부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2:15
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전 12:15 새벽예배 오전 5:45 (화-금) / 6:00 (토)

세리투스장로교회
세리투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901
T. (562) 860-5451 / ilovecc.org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
(다문타운 4기 Crocker St.)
1부기리예배 오전 7:00
2부성탄예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7
T. (213) 385-4515 / F. (213) 385-547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EM예배 오전 10:00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할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지 사른 담임목사**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의 기도와 성령의 임으로 온전한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살vation, 생명의, 사랑과 감동하는 주님의 부름을 알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1부예배 오전 8:00 **김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일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om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반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교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홀름, 스. 친. 초. 정신의 홀름, 비튼교회관의 홀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hyun.org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방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성현경 담임목사**
스페인어 오전 10:00 오후 6:0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룸) 수요일 오후 7:45
오전 12:00 (분당)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드리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양성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1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수요일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25(화-금)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7
T. (213) 386-2233 / F. (213) 386-2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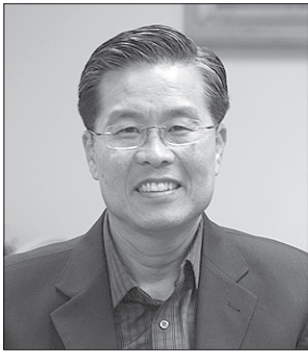
'감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치유하는 삼감의 사랑들이 되자'
www.samcare.org

SAM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교회 내 모든 호칭은 직분 없이 형제자매

허봉기 목사 “시무장으로 외 모두 폐지하고 전도 중심 교회로”



허봉기 담임목사 (뉴저지 찬양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런 변화를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다. 성도들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풀어놓고 설명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서 먼저 당회에서 결정하고 안수집사회에 가서 설명을 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 교인들에게 전달했다. 때로 목회자는 교인들이 원치 않는 일이라도 교인들에게 중요한 일이라면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회자는 전문적인 신학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평신도보다 교회 전체를 안목있게 바라봐야 한다. 그 부분의 전문가가 목회자가 아닌가. 나는 성경적으로, 양심적으로 이것이 교회를 든든하고 이롭게 한다고 판단했다. 교회 안의 어떤 중에는 이 변화에 대해 힘들어하는 분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을 문제삼고 반발하는 사람은 없었다. 장로로 시무하다 물러나신 분들을 다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다. 직분제의 변화에 대해 “꼭 이렇게 해야 교회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표하시려는 분이 있었다. 그러나 반대하지는 않으셨다. 내가 목회를 편하게 하려고, 혹은 교회행정을 장악하려고 호칭제를 바꾼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는 것 같다.

물론 찾아와서 반대하는 분도 없었다. 내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의구심을 갖는 경우나 적응이 힘들다고 하신 분은 있었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분은 없었다.

-찬양교회는 처음부터 다른 한인 교회와는 다른 목회 토양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현재 찬양교회의 세리집사 직분은 없다. 그리고 찬양대도 3개가 있었지만 하나만 남기고 해산했다. 만일 이것이 잘못된 시도였다면 교인들의 반발이나 이동이 있었겠지만 해산한 성가대에 소속된 지휘자, 반주자들도 모두 찬양교회에 나오고 있다. 나를 생각하는 분 중에는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걱정하는 분도 있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은퇴 이야기를 했다. 이제 7년, 8년 밖에 목회 임기가 남지 않았는데 초조해서 그렇다. 설명했다. 무슨 일을 해서 자리를 잡으려면 5-6년이 걸리기 때문에 서둘렀던 것이다.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이비 찬양교회는 장로라는 직분보다는 전문적인 분야에 따라 일을 담당하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다. 내가 찬양교회에 온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에도 찬양대 안에 장로와 안수집사도 있었지만 세리집사가 찬양대장을 맡기도 했다. 2-3년 교회 온 사람이 찬양대장, 재정부장이 되기도 했다. 우리 교회는 애초에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직분제와 호칭제의 변화가 평소 목회철학에도 연관돼 있는 것 같다. 어떤 목회철학을 갖고 있는가.

목회철학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내 구상이다. 내가 찬양교회에 와서 처음 한 일은 모임을 없애는 것이었다. 교회는 잠깐 모여서 훈련하는 곳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주된 장소는 세상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을 향해 나가서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데 소위 그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교회가 구조적으로 교인들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을 최소화했던 것이다. 이런 일환으로 금요 심야기도회와 수요 모임을 수요예배 하나로 통합했다. 모임 하나를 없앤 것이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기도를 없앴고, 나중에는 수요예배도 없앴다.

이제는 금요일날 목장을 시작하기 위한 조치였다. 목장모임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신앙을 훈련하는 시스템이 자리잡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 즉 주일날 설교를 갖고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목장 모임에서는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은혜를 나눈다.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신앙을 훈련하는 시스템이 자리잡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 즉 주일날 설교를 갖고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목장 모임에서는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은혜를 나눈다.

-찬양교회가 도입하는 직분제와 호칭제가 성경적이라고 보는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많은 병폐를 안고 있는 직분제가 성도의 하나됨을 방해한다고 생각했다. 우선 찬양교회가 적용하고 있는 가정교회는 새로 오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목회다. 그렇게 볼 때 호칭이 중요했다. 처음 사람이 오면 부를 호칭이 없다. 우리 교회는 교수, 박사 등의 호칭을 교회 안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전혀 그런 문화가 아니다. 안 세어봤지만 박사가 1백명도 될 것이다.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도 않은데 누가 집사인지 장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직분을 구분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형제님, 자매님의 호칭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니 새롭게 교회를 찾는 사람이 오히려 편할 것이다. 또 포도 형태, 자매라고 한다면 전혀 거부감이 없다. 전도지향적인 교회를 위해서는 이 호칭제의 정리가 아주 중요했다.

-이비 찬양교회의 새로운 시도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 찬양교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직분제와 호칭제가 정비되면 가정교회의 구조가 더욱 선명해 질 것이다. 목자를 목자라고 호칭하는 것이 수월하다. 만일 장로와 집사를 크게 생각한다면 목자라는 호칭도 적응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직분과 호칭이 정리되면 교회가 심플해지고 가정교회 중심적인 목회가 가능해진다. 가정교회는 목자들이 목회의 최전선에 있는 평신도들이다. 직분 일부를 폐지하거나 호칭을 정리하는 것은 목장을 목자 중심으로 세우는 것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내가 생각하는 목회 구상과 꼭 맞는다.

기존 교회들은 이런 찬양교회만의 형태에 영향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직분을 중시하는 권사나 장로들의 수평이동이 없을 것이니 찬양교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신자의 전도가 활성화 될 것이다.

김대원 기자

“우리 담임목사가 다른 교회에 청빙됐다”

리더십 교체의 대안은 무엇인가

대형교회들의 청빙은 근래 한국교회의 가장 큰 화제거리였다. 이쯤만 되면 알 만한 교회들이 후임을 찾아 새 출발했고, 현재 청빙을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교회들도 많다. 그야말로 ‘청빙 바람’이 불고 있다. 문제는 이들 대형교회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존 교회의 담임목사들을 후임으로 청빙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때 청빙을 요청받은 목회자의 교회 교인들은 갑작스런 소식에 상실감을 느끼고, 심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 담임목사에 대한 존경과 애착이 강할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형교회로 자리를 옮기는 목회자들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대형교회가 먼저 후임 자리를 제안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목회자가 스스로 청빙 중에 있는 대형교회에 지원하는 경우다.

전자라면 소위 “대형교회가 목사님을 빼앗아 갔다”는 식의 반응이 나타나고, 후자라면 “배신감을 느낀다”는 정도의 반응이 나타난다. 결국 어떤 모양이든 대형교회의 이런 청빙은 상대 교회에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

외부 시선도 좋지 않다. 비신자들은 물론 기독교인들조차도 대형교회의 청빙을 이른바 ‘대기업의 스카우트’나 ‘일류기업으로의 이직’ 등 세속적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 특히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높은 사례비 등 호화스러운 생활이 알려지면서 이런 비판적 시각은 더욱 굳어졌다.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다. 한국교회사를 전공한 권병 박사 는 “역사적으로 청빙을 둘러싸고 교회들 사이에 갈등이 꽤 있었다”며 “한때 한국교회에선 지방에 이름 있는 목회자를 서울의 큰 교회들이 서로 데려 가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부목사 청빙, 대안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러면서 ‘부목사 청빙’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한 목회자는 “사실 교회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부목사다. 목회의 최일선에서 교인들과 자주 대면했을 뿐 아니라 각종 행정 사항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이 있어 교회의 구성원들을 속속들이 꿰고 있다”며 “경험과 역량 있는 부목사가 후임자가 되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도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지 부목사를 바로 그가 사역하는 교회의 담임으로 청빙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내 대표적 교단인 예장 합동과 통합은 모두 이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칫 현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부목사와 연대해 갈등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 교회 부목사 청빙’을 보다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담임목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부목사를 교회들이 청빙하면 이들의 처우 개선 뿐 아니라 현재 한국교회 병폐 중 하나인 목사 수급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부목사들의 역량을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드물어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교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대형교회를 제외하면 부목사들의 활동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목회자들, 진정성 보여야 다양한 검증 방법 마련도 필요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회자들 스스로 뚜렷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목회자는 “담임목사들이 ‘나는 언제나 교

회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위임식을 했다는 건 평생 이 교회와 함께하겠다는 교인들과의 약속”이라며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대형교회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이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다. 목사를 믿고 교회를 다녔던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원래 시무하던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경우는 잘 보이지 못했다”면서 “목회자들이 대형교회로 가는 만큼 작은 교회로도 간다면 단순히 대형교회로 자리를 옮겼다 해서 비판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 안에 진정성이 있다면 걸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한 신학자 역시 “어떤 제도의 개선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설사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부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도 양심에 따른 것이라면 교인들도 그 진정성을 이해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교회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목회자들은 쏟아지는 청빙에 있어서도 세속적 가치관과 경쟁 원리가 작용한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목회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목회자들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형교회도 청빙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조언한다. 한 목회자는 “대형교회들이 후임자를 물색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부분은 아마 설교일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청빙 대상이 좁을 수밖에 없다. 설교만이 아닌, 보다 다양한 목회자 검증 방법을 개발해 숨은 인재들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진영 기자

교회 바자회 마켓 반찬 취급 하시는 분 하숙 하시는 분 (도매가에 드립니다)

취급 품목

* 플라스틱 그릇 무료 제공합니다.

오징어젓	고추젓	연근조림	명란젓	마늘쫄무침
어리굴젓	양념계장	우렁된장	창란젓	고추앞무침
가리비젓	양념갯잎	냉이된장	낙지젓	장어구이포
황새기젓	간장갯잎	간장고추	조개젓	파래무침
더덕무침	된장갯잎	된장고추	갈치젓	무말랭이

3109 W.Olympic Blvd #D Los Angeles, CA 90006

서광식품(213)256-4707

자동차! 토네이션

남가주 지역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을 위한 차량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어려운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란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개혁 아닌 말씀이다



진유철 목사
나선순복음교회

고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등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복을 받고 함께 하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며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위한 꿈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이 있는 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자기가 남을 개혁하겠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가정에서, 사업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인건 자기가 무언가를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씀에 먼저 순종할 뿐인데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에 대한 투자가 만큼 확실하고 완전한 투자는 없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눅 1:37),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마5:18,19)

우리가 말세의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을 이겨내고, 세상을 복음화 시키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어느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기독교자들은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사도들이 하는 것이란 기존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불온한 반체제 행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결코 당시의 사람들을 비판하며 체제를 엮어 버리자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을 비난하며 구질서를 파괴하자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좋은 변화와 아름다운 개혁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힘을 가진 자가 인위적으로 개혁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힘을 만들기 위해 당을 짓고 뒷발을 퍼뜨리고 권모와 술수를 사용해서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힘을 가진 자일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예배에 나오고 앉아서 기도하며 힘쓰며 기독교를 내려놓

기독교일보

편집인 : 박희민, 정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맹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팩스 : (718) 228-950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크리스천의 가치실현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한국에서 기독교100주년기념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재철 목사님께서 오래 전에 <참으로 신실하게>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다.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은 한 동안 미국의 경영학계에 주목을 받았던 이론 하나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Chan Kim 이라는 교수가 주장한 가치혁신 이론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기업은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 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한때, 전세계적으로 극장 산업이 사양길을 걷던 적이 있었다. 그때 벨기에의 어느 극장주가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사람들이 20대를 끝으로 극장에 발길을 끊어 버린다는 것이다. 예전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극장을 찾았는데, 이상하게도 30대

가 되지만 하면 극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극장주가 그 이유를 찾아 본즉,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이었다.

첫째로, 30대란 대부분 자녀를 가진 부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극장에 가기 위해서는 매번 누군가에게 자녀를 맡겨야만 하는데, 그 번거로움을 꺼려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30대부터는 자기 소득 증대로 인해 자연히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마련인 반면, 오래 전에 어진 극장의 의자는 전후좌우가 모두 좁아서 2시간 동안 앉아 있기에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셋째로, 시대의 발전으로 30대는 거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옛날 시내 중심에 자리잡은 극장은 주차장이 전혀 없는 실정이었다. 일단 자동차를 생활화하기 시작한 사람이 오직 극장에 가기 위해 정거장까지 걸어가서 전차나 버스로 움직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넷째로, TV와 비디오의 발달로 단지 한편의 영화 감상 위해 극장에 간다는 것은 별다른 매력일 수가 없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극장으로 하여금 30대 이후의 사람들이 극장과 관련하여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다고 한다. 즉, 극장에 갈 때에는 손쉽게 자녀를 맡길 수 있어야 하고, 극장에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어

야 하며, 극장의 좌석은 안락해야 한다. 나아가 극장은 단순히 한편의 영화 감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놀이터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확인한 극장주는 혁신적인 방안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즉, 시내 중심가가 아닌 번두리의 넓은 땅을 싼 가격에 구입하여 극장을 짓고, 주차장을 완비했다. 그리고 극장 안에 차일드케어를 설치하여 부모가 마음 놓고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크고 안락한 의자를 설치해 쾌적함을 높였다. 극장 안에 여러 개의 상영관을 두어 관객들이 원하는 대로 영화를 선택해 볼 수 있게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극장 안에 스낵 코너와 게임기까지 설치하여 명실공히 종합적인 오락장이 되게 했다. 이 극장주의 가치혁신이 30대 이후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복합상영관의 효시가 되었다.

기업은 고객을 왕으로 부른다. 고객 없는 기업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업이 그 존속을 가능하게 해 주는 왕이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파악하여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혁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하고 있다. “크리

스천이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즉, 크리스천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중단 없이 자기 혁신을 꾀하는 자이어야만 합니다.”

참으로 귀한 통찰력이요,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이재철 목사님의 이 마지막 언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마땅한 신앙의 자세라고 믿는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행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가치를 끊임없이 구현하며 나를 주님께 드려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마땅한 모습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이 결정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과연 나의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부여해 주신 그 가치와 의미에 부합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변화의 조짐을 읽는 지혜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모든 계절의 시작에는 언제나 그 조짐이 먼저 옵니다. 비가 내려 눈을 녹이는 우수(雨水)와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경칩(驚蟄)이 오면 봄이 시작되고, 풀잎에 서리가 내리는 백로(白露)와 찬 이슬이 맺히는 한로(寒露)가 되면 겨울이 옵니다.

인생에도 계절이 있어서 성숙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계절에 다가오는 조짐은 자주 어떤 느낌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답답함을 들 수 있습니다. 뭐라고 딱 부러지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마음이 답답하다면 그것은 내면의 세계에서 어떤 변화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조짐입니다. 그런 답답함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다 보면 삶은 화석처럼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침울한 느낌도 하나의 조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느낌은 내가 나에게 걸어오는 진지한 대화입니다. 침울한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우리 내면의 자아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불만족스런 느낌도 그런 조짐 중의 하나입니다. 주변의 흐름에

자신이 뒤쳐지고 있다는 느낌은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자기진단이기도 합니다. 만족하고 있는 동안은 자기 자신에게 달콤한 휴식을 주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이런 시간이 길면 변화의 주기를 놓치고 맙니다.

느낌으로 오는 조짐을 우리가 무시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아프게 우리를 건드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짜증섞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불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조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은 관계에 금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 이것은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신호로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돈으

로 살 수 없는 양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대소사를 변화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람은 지혜있는 사람입니다.

변화는 축복입니다. 물론 좋은 방향의 변화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변화는 하나님을 향한 변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변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변화의 조짐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바르게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시편 42:11)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몰 2층) LA, CA 90006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과 대학 교수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몰 2층) LA, CA 90006

31년 전통의
HEALTH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Father's Day 보은세일

Made in USA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프로모션 선택 패키지

8병을 100불

(알파 2병까지 섞음) 총 280불 소매가격 +tax

7병을 100불

(알파 3병 섞음) 총 270불 소매가격 +tax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각종 위장병에
특히 좋은
알파 구연산!

30불/ea +tax
Kosh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50불/ea +tax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비디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막힌 체험사례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해 주세요.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기쁘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알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똑똑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음.
- ★비염,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까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오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견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관함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취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융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LA본점으로 연락바람

월-금: 10am-7pm, 토:10am-5p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당뇨에는 동의 당뇨환

동의 당뇨환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100% 순수 한약재로 되었음
2. 식사가 어느정도 완화됩니다.
3. 피가 청결해져서 최대한의 합병이 억제됨
4. 식후에 갈 심해 복통합니다.
5. 당 수치가 조절됨에 따라 동의당뇨환의 복용량을 줄여가다가 끊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 2621 W. Olympic Bl #202 LA CA 90006 213-427-0036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과 팝니다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금 매입

초박시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라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가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빠른 효과 치료 베니스 한의원

특별진료과목 [감기/비염/위장병] 예방 및 근본치료 원칙

- 각종 위장병, 만성변비, 방광염, 잦은소변
- 중풍, 반신마비, 대상포진, 안면마비, 오십견
- 신장결석, 담결석 (전통비방특수한약)

침/전침/화침/블부왕/고약/보약/공진단/소화환

유학생 여행차 교통사고 건강보험상당 2270 W. Venice Blvd L.A. CA, 90006
213.271.7002 웨스팅과 베니스 사거리 테크노 링크 주차장 WWW.LAHERB.COM

황씨 냉동. 에어컨. 히팅

신속, 정확, 저렴 전지역 가능, 24시간 대기

상업용: 마켓 식당 리커, 냉동냉장, 웨어하우스 교회 센츨럴 A/C, Walk-in 냉장, 냉동설치 및 수리, Ice Cream 머신수리

가정용: LG벽걸이 A/C설치 수리, 하우스 아파트 센츨럴 A/C 냉장고, 설치 및 수리

(213)220-7131 (626)807-8799

Kate Cho 헤어디자이너 케이트 조

Man's cut \$10.00 Women's cut \$20.00

영양염, 윌빙염, 아재염 \$50.00 하이라이트, 코팅, 염색 \$50.00

매직 스트레이트 펠 \$80.00

반드시 꼭 예약 필수!! 213.505.5756
450 S. Western #101, Los Angeles, CA 90004

골드핑거 직접재단 직접재봉 양복점

삼성이 만든 명품 양복지 골드텍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에서 수제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동산한의원 30주년

경험방으로 특수치료

50년 50% 할인가격으로 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툰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 (213) 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세계일류 상품 인증 획득 미주총판 www.Caidrox.com

2011 大賞

*Black Box(차량용 영상저장장치)란? 주행이나 주차시 매거져 있는 모든 사건 사고등을 영상으로 속도, 위치, 시간, 음성을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위기의 순간 **유일한 목격자**
Black Box LA, INC., T.562-495-9987

비영리단체 설립 및 면세허가 (교회, 선교단체 등)

- 처리경험 풍부
- 비영리단체 세무상담, 장부정리(Quick Book), Tax 보고
- 일반 영리 사업체 설립 및 각종 세무보고
- IRS, EDD, FTB 등 세무감사 수감

Kim & Accountancy Tel. 714-226-0900

sasafterschool.blogspot.com

민고 맡기세요.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집니다 K~6

Math English ESL Writing Bookclub

APPLE TREE ACADEMY

Pick up, 전담한 선생과 함께 학교공부 준비를 100% 도와 드립니다.

213.507.5045

가디언 컴퓨터 수리

213-663-8007
213-536-4696

317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이중창문교체전문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한방병원

www.herbsabu.com

방울 엑스민으로 척추 근육을 풀어줍니다.

내장비만 & 다이어트

현대인의 고질병인 비만 몸 속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배고픔이 없고 요요현상 또한 없이 위장이 좋아 소화생활동 건강해집니다.

금연클리닉 스페셜 \$200 (당문 때까지 치료)

안면/한방 두가지 치료를 병행하여 뇌가 자연스럽게 연동됨을 생성하게 하여 니코틴을 찾는 것을 막음으로 담배를 끊게해드립니다.

726 S. Wilton Pl. #2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1-8228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통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 (213) 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홈 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587.3498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외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세상 속의 소금과 빛, 우리는 그리스인〉

“미 주류사회에 한의학의 우수성 알려야”

[인터뷰] 만성내과질환 전문 가야한의원 윤동원 원장

“닉슨 대통령 재임 당시 중국에서 동양의학이 들어 왔는데, 그 영향으로 아직까지 미 한의학계엔 한국적인 것보다 중국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한국 한의학만이 가진 우수성을 알려서 미 주류사회에서 인정받고 대우받는 기반을 닦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가야한의원 윤동원 원장을 만났다. LA 소재 살라한의과대학에서 임상지도교수와 인턴 수퍼바이저를 역임한 그는, 현재 필드에서 교육과 대학 강의를 통해 후배들에게 사암침법과 사상학을 가르치고 있다. 올해 나이 64세. 미국에 이민 온 지는 어느덧 2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는 원래 한국에서 인공과대를 졸업한 이공계 출신이다. 그랬던 그가 결혼 후 진로를 바꿔 한의학에 발을 들여놓게 된 데에는 장인어른인 노정우 선생의 역할이 컸다. 지금은 고인이 된 노 선생은 경희의료원 초대 한방병원장에 재임하며 한국 한의학 박사 1호로 알려진 한의학계 원로다. 윤 원장은 이런 장인어른을 뒤탈라지 하면서 한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책도 접하면서 배우기 시작했고, 도미 후 본격적으로 한의학의 길을 걷게 됐다.

그는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칠 때 미국식 사고방식에 맞춰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공학도 출신답게 한의학 이론을 과학화·객관화·표준화 작업을 거쳐 이해시키고자 노력한다. 실제로 인체의 기의 흐름(유주)을 도식 이미지로 만들어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이 방법은 한국의 유명 경락연구소에서 벤치마킹할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장인의 뒤를 이어 한의사가 된 윤 원장은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혹시 아들 딸 중에 한의사는 없나”는 질문은 그는 “아직 없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학문에 접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한의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딸과 며느리가 한의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슬쩍 내비친 그는 한의사라는 직업이 특히 여성에게 좋은 직업이라고 추천했다. “평생 책을 끼고 공부해야 하



윤동원 원장

는 직업이지만 한의학을 어렵게만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성들도 집안에서 가정일을 돌보며 자유롭게 시간을 투자해서 학업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투자 없이도 면허 하나로 평생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무엇보다 동양의학이 미 주류사회에 들어온 지는 40년 밖에 안 돼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새롭게 개척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여자의 추리는 남자의 확신보다 더 정확하다는 말이 있다”면서 “전문적인 과학지식을 요한다기보다 자연과 맞닿아 있는 학문이기에 남성에게 비해 섬세한 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업”이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대학에서 여학생이 입학하면 “아주 잘했다”고 격려한다고.

“나이 들어 한의학을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나”는 질문에는 “한의학은 생활의학이다. 즉 주변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자주 접할 수 있는 소재들로 만들어진 학문”이라며 “젊은이들에 비해 오히려 인생을 오래 살아 온 나이 드신 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쉽다”고 말했다. 그는 “교계에도 한의사 라이선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기왕에 발을 들여 놓았으니 한의학을 선교의 부수적 차원

으로만 여기지 말고, 학술적 기반을 넓혀 영육간 전이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보다 차원 높고 전문화된 사역 분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성내과질환 전문의인 윤 원장에겐 고질적인 내과환자들이 많이 찾아 온다. 한인과 외국인 환자 비율은 20대 80이다. 최근엔 일본에서 관절염, 피부병, 만성 피로 질환을 앓고 있는 난치병 환자 3명이 비행기를 타고 와 진료를 받고 돌아가기도 했다. 일본인 학생도 그에게 한 달간 배우고 돌아갔는데, 가자마자 취직이 돼 감사의 뜻을 전해 왔다.

그는 환자를 대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미 정해진 질병의 결과를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찾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너무 양의적으로 접근하면 치료방법을 못 찾는다”면서 “양약의 한의 접근법 자체가 다르기에 무리하게 맞추려고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만의 독립적인 체질과 성품을 이해하고 평소 섭생과 사회생활에 주의 기울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주소) 621 S. Virgil Ave. #209 Los Angeles, CA 90005 연락처) 213-400-1012

정한나 기자

강력한 항암효과 지닌 겨우살이

판매수익금은 기도원 건립과 기아 어린이 돕기에 사용

-Hope Herb Center(소망원)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소망한의원(LA한인타운 소재)을 줄여서 소망원이라고 명명했고, Hope Herb Center라고 합니다. 박주호 원장님은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주일예배 후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침술을 제공하는 등 섬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의원에서 겨우살이 약초를 직접 채취,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나성소망교회 가 추진 중인 기도원 건립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이 기도원은 LA의 소령교회들을 위해 개방됩니다. 또 수익금의 일부는 월드비전을 통해 10명의 어린이 후원, 선교사를 통한 볼리비아 어린이 후원에 사용됩니다.

-겨우살이는 무엇인가요?

특유의 노란빛으로 ‘황금가지’라고도 불리는 겨우살이는 나무에 기생해 사는 식물입니다. 주로 참나무, 물오리나무, 팬나루, 밤나무 등에 기생해 살며 동양은 물론 서양에서도 약귀를 쫓는 신성한 식물로 알려져 왔으며,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신이 내린 영초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독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또 몸을 따뜻하게 하는



나성소망교회 부설 Hope Herb Center(소망원)의 정기적 전도사(위원장, 좌)와 이현기 장로(부위원장, 우)

효능이 있기 때문에 감기 등의 기관지 질환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암, 폐암, 신장암 등을 치료하는 효능을 지닙니다. 이외에도 신경통, 관절염 치료, 이뇨작용, 고혈압, 지혈 작용, 당뇨 치료에 좋습니다. 이것은 약품이 아닌 식물로 취급되며 설상 이상 꾸준히 음용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겨우살이 제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독성과 부작용이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건강 식품 안전 보험도 들어 있고, 상품특허가 ‘겨우살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품 종류는 박스(티백)와 병(가루) 두 가지가 있고, 박스

는 8그램 짜리가 30개가 들어 있으며, 티백 하나에 1.5리터 정도의 차를 3번까지 우려 먹을 수 있습니다. 가루는 약간 큰 티스푼 2개 로 티백과 같은 양의 물을 3번까지 우려먹을 수 있습니다. 가루 제품은 커피메이커에 1.5리터 정도의 물을 내려 먹으면 편리하고 좋은데 진하게 먹고 싶으신 분은 물을 적게 넣으면 되고, 연하게 먹고 싶은 분은 물을 더 넣으면 됩니다. 겨우살이는 차 같지만 차가 아닌 건강식품입니다. 이것을 내린 물로 밤을 하면 건강에도 좋은 영양밥이 됩니다. 앞으로 제품 종류를 늘려 겨우살이 효소, 엑기스 등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판매처: 4055 Wilshire Bl.

Los Angeles, CA90010

▲문의: 213-380-0258

빅터 박 기자

인터넷 전화의 대명사 아이토크비비 LA에 상륙



아이토크비비 LA 직영점 오픈 기념 행사가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몰에서 열렸다.

인터넷 전화의 대명사 아이토크비비가 최근 LA코리아타운 갤러리아몰에 LA 제1호 직영점 개점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배무한 한인회장장과 중앙일보 조병환 대표를 비롯한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다이앤 김 상무는 “올해로 미주 진출 4

주년을 맞이해 고객들께 한 발 더 다가서고,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인타운의 중심에 제1호 직영점을 오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한인사회를 위한 문화, 의료, 봉사 등 많은 일들을 앞으로 펼쳐 나갈 것을 약속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토크비비는 지난 6월 6일 고객 감동 서비스 실천의 일환으로 LA CGV에서 영화 ‘코리아’ 단독 시사회를 갖기도 했다.

코리아타운 갤러리아몰에 문을 연 아이토크비비 직영점에서는 개점 기념으로 신규 가입 고객을 위한 다양한 사은품을 준비했으며,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는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선착순으로 무료 국제전화카드를 나눠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매장 내에는 아이토크비비 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아이토크비비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며 동시에 무료로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어 LA 지역 한인들로부터 큰 호응이 예상된다. 문의: 800-872-2902 www.Korea.iTalkBB.com

한주연 기자

Advertisement for iTalkBB featuring a mobile phone, pricing (\$9.99/month), and contact information (1.800.872.2902, www.Korea.iTalkBB.com).

2012 최신형 EQUUS

8 스피드의 넘치는 힘과
력서리한 중후함을 느껴보세요

499 +TAX (STK:049208)

Closed and lease 36 month plus tax
MSRP: \$59,650 Residual : \$39,422
T.D.O: \$5,400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Coupon (O.A.C)



800대를 수용하는 에쿠스를 가장 많이 보유한 북미 NO.1 현대딜러

GENESIS



269 +TAX (STK:197000)

Closed and lease 36 month plus tax
MSRP: \$35,225 Residual : \$19,726 T.D.O: \$2,499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Coupon(O,A,C)

**6월 한달 푸엔테힐스 현대가
드리는 혜택**

(행사기간 2012년 6월1일~30일)

1. 구입하는 모든분들께 유명 골프장에서 4분이 무료 라운딩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2. 평생 카워시

2012 Sonata GLS M/T



EPA 기준 대형차급 실내공간
2011년 정부 안전기준 별 5개를 획득한 최초의 중형세단

129 +TAX (STK:465125)

Closed and lease 36 month plus tax
MSRP : \$20,970 Residual : \$12,162 T.D.O : \$1,999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 Millitary Rebate, Valued Owner

**6월 한달간
무이자(0%)에 \$1000을 더 드립니다.**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Fleet Manager
찰리 정
213.276.8959



Sales
스티브 장
213.235.6825



Customer Care
제니 김
310.749.7599



Sales
매튜 김
714.797.3571



WWW.PHHYUNDAI.COM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